

석사학위논문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희 정

2011년 8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희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희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김 희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시내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용린(1997)이 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용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으로 5개의 영역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독서치료 이론서와 타 여러 논문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서 실시한 프로그램, 연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과 활동을 총 11회기로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실험집단 10명에게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으며 실험이 끝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정서지능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통계 분석의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 질의응답, 관찰 내용과 만족도 평가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후검사에 있어서 정서지능과 그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검사지 반응 분석결과의 보완을 위한 소감문 및 관찰 내용 분석 결과,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의 증진, 정서 표현, 정서조절을 하면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검증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해마다 늘어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5
II. 이론적 배경 .....	6
1. 독서치료 .....	6
2. 정서지능 .....	16
3. 독서치료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	2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25
1. 연구대상 .....	25
2. 연구도구 .....	25
3. 연구설계 .....	32
4. 연구절차 .....	32
5. 자료처리 및 분석 .....	33
IV. 연구결과 및 해석 .....	35
1. 통계적 결과 분석 .....	35
2. 질적 자료 분석 .....	38
V. 논의 및 결론 .....	46
참고문헌 .....	49
Abstract .....	54
부 록 .....	57

## 표 목 차

<표Ⅱ-1>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성격 구분 .....	15
<표Ⅲ-1> 연구대상 .....	25
<표Ⅲ-2> 정서지능 검사의 6개 하위영역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7
<표Ⅲ-3>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요 .....	27
<표Ⅲ-4> 도서 선정 자료 내용 및 선정 이유 .....	30
<표Ⅲ-5> 연구의 진행절차 .....	33
<표Ⅳ-1> 집단별 정서지능 사전검사 결과 비교 .....	35
<표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사전 정서지능 검사결과 비교 .....	36
<표Ⅳ-3> 회기별 활동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	39
<표Ⅳ-4> 회기별 관찰 내용 분석 결과 요약 .....	42
<표Ⅳ-5>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43
<표Ⅳ-6>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 .....	45

## 그림 목 차

[그림Ⅲ-1] 실험설계 .....	32
[그림Ⅳ-1]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	37
[그림Ⅳ-2] 정서지능 사전-사후 비교 .....	3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종일 학원을 돌아야하는 공부의 어려움을 한탄하며 자살하는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등교를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또한 늘어가고 있다.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불균형에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지혜(2008)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서적인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의 성장을 더 중요시 해 온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라고 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관계의 해체와 더불어 입시위주의 인지적인 측면의 교육은 아동들의 사고와 의식, 행동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아동들을 점점 흥미 위주로 변하게 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대중매체에 무분별하게 빠져들면서 자아개념과 인성(personality)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김남숙, 2005).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부) 가정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자녀 양육 자체가 쉽지 않은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지적 교육 현장에 흡수되지 못하여 곱들게 되며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 세계로 빠져들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

청소년 문제로 국한 되었던 비행문제들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고 점점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황금숙(2004)은 정신문제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 중독, 가출, 자살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 절도, 살인 등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그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인지,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이런 문제들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정서교류가 적절히 이루어져 정서 발달을 위한 양육,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치유될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여진, 2009; 김지혜, 2008; 라은숙, 2005; 박수현, 2005; 장현영, 2003)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장은, 2007; 차성혜, 2009) 결과도 있다. 위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지능을 향상 시키면 정서상태가 안정적이 되고 심리적 기능이 강화되어 부적응 현상을 일으킬 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이란 일반지능과 대비되는 말로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유경미, 2002). 정서지능 계발의 시기를 김창대(1997)는 성인기보다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정서적 특성이 형성되기 전, 아직 변화가능성이 많은 단계인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 늦어도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정서지능의 계발과 활용방안 탐색, 1997). 아동기에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지능력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차성혜, 2009) 요즘의 초등학교 아동들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가정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동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정서나 느낌을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는 경험과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경험을 가능한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으로 형성된 정서지능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게 하고 보다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문용린, 1996).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면 또래집단에서 수용적이며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자기정서 인식력이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사회·정서발달과 문제해결을 촉진시키고 타인정서 인식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김경희, 1999).

정서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감

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정서지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문용린, 2005). 부모가 읽어주는 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서를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책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또는 책을 매개로 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들은 책에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새로운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아동들은 자기의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이재연, 2001). 이와 같이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토론, 글쓰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과 성장, 당면한 문제해결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적 접근 방법이 독서치료이다(김현희 외, 2003).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통해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치료의 대상자라고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독서치료 진행자가 책을 매개로하여 대상자와의 감정적 교류를 이룸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송규남, 2009). 감정적 교류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적절한 자료의 선정과 질문이라 하겠다. 선정된 자료를 이용한 독서치료를 통해 아동들은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1990년 후반부터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정서지능이 유아나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지역에서도 1997년 ‘정서지능(EQ)의 계발과 활용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제주 지역에서 정서지능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인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심리치료 방법들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독서프로그램과 정서지능 및 기타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독서치료적인 관점보다는 지도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황문규, 2003; 김선희, 2005; 이희경, 2005; 김은희, 2006; 배철우, 2007). 2000년대 후반부터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유아의 정서지능 효과를 확인한 이미나(2009),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알아본 송규남(2009), 새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민정(2009) 등이 있다.

아동기의 긍정적 정서는 성인이 되어 속하게 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식하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삶과 학습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올바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정은희, 2008)는 점에서 보다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적절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박경애, 2006). 독서지도에서는 미리 짜여진 발문을 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반응에 중점을 두어 유연한 상호관계와 독서치료의 세 가지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통해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대상을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는 가정에서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이거나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저소득층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연구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 독서치료를 실시할 만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 자체의 경험과 치료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한 진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 설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독서치료의 개념과 원리, 목적, 자료의 선정기준, 정서지능의 개념과 구성요소, 독서치료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독서치료

#### 가. 독서치료의 개념

최근 장애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실제 치료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치료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게 발표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대상 아동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 편, 2003). 다른 심리치료에 비해 독서치료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동은 놀이와 미술,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듯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감정을 표출하고 이로 인하여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송규남, 2009).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다른 아동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되며, 책 속 인물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란 말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된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라는 그리스어의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하겠다(Hynes & Hynes-Berry, 1994).

고대 그리스 테베 도서관과 중세 스위스의 성 갈(St. Gall)수도원 도서관에는 각각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healing place of the soul)'라는 명칭과 '영혼을 위한 약 상자'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는 책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책을 이용한 치료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유상희, 2008).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교육(biblioeducation), 독서심리(bibliopsychology), 독서상담(bibliocounseling), 문학치료(literatherapy), 독서클리닉, 독서치료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나 이들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는 '독서요법'과 '독서치료'가 동일한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서치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독서지도와 독서교육은 그 목적이 좋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함, 어떻게 하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동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독서치료는 아동들의 상황과 어려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은 후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책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여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지도 또는 독서교육과 독서치료는 같은 책을 읽거나 읽은 후 활동은 같을 수 있으나 그 목적과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송규남(2009)은 독서치료란 책을 통하여 아이들의 정서불안, 부적응 문제 등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Pardeck(1991)은 현대의 독서치료 경향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정서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적응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 성장과 발달상의 문제를 다루어 가도록 돕는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하였다(이재연, 2002, 재인용). 자료를 읽거나 들은 후 게임, 그리기, 역할극, 토론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이끌어 내도록 도울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치료자와 참여자 사이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는 비슷한 정도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나동화 등의 인쇄된 글 혹은 시청각 자료를 읽거나 들은 후에 토론을 하는 형태이

다(양명숙, 2005).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에 대한 상호작용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거의 집단으로 독서치료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허지연, 2007), 본 연구에서도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 또는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일대일 보다는 여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독서치료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oll, B. 와 Doll, C. 는 교육학 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책을 사용하며, 책은 독자의 성격을 측정하고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책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 독서요법이다. 그리고 선택된 독서 자료의 내재된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Hart(1998)는 치료자와 도서관 사서가 읽으라고 지시한 책을 참여자가 읽음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독서치료라고 얘기하고 있다(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 편, 2003).

상호작용을 강조한 Hynes와 Hynes-Berry(1997)는 “독서치료란 시에서부터 단편소설, 자서전, 개인의 일기, 생활사, 동화책 및 그림책 등에 이르기까지의 가능한 모든 문학적 형태를 포함하는 문학작품들을 가지고 치료자와 참여자가 문학작품을 같이 이해하고 나누는 상호작용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미나, 2009, 재인용).

최선옥·한윤옥(2006)은 독서치료는 책과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를 뜻하며 이때 독서치료 인도자(교사·사서·상담자)는 참여자의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적절한 문학작품을 선택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참여자와 일대일 혹은 집단을 통해 감정적 교류를 이룸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정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서치료는 발달적 혹은 특수한 문제를 지닌 대상자가 당면한 문제에 알맞은 도서를 선정하고 치료자와 일대일 또는 집단으로 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의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도서자료는 책 뿐 아니라 영화나 노래, 음악, 그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읽기와 쓰기, 그림 그리기, 게임, 역할극,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이 가능하고 참여자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독서치료의 목적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책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치료는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발달해 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양재한 외, 2007). 음성언어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 문자언어가 덜 공격적이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나 활동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부담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서치료의 목적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 Doll, B. 와 Doll, C. (1997)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독서치료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책을 읽는 아동들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기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Joseph(2003)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 인간관계, 자신의 운명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생각이나 새롭게 알게 된 언어, 사실들을 스스로 표현해보게 하는 것은 언어 표현력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치료자는 어린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통찰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카타르시스(catharsis)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문학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다(박경애, 2006). 자신과 비슷한 문제 상황에 있는 책 속 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으로써 통찰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통찰을 통해 아동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해 어린이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독서치료에 사용되는 매체는 다양하다. 책 뿐 만 아니라 그림이나 음악, 노래, 영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나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일시와 모델링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동일시를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들은 책을 읽고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책은 주인공과 비슷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주며 더 깊은 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경여(2005)와 이경옥(2011)은 각각 일반 아동과 학교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또래집단과의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여섯째, 특수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 왕따, 전학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변화들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현재 도서관이나 독서치료학회 등에서 다양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일곱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독서의 즐거움을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유아나 아동들은 책을 읽는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주는 즐거움은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독서치료의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Hynes와 Hynes-Berry(1994)는 독서치료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왜 독서치료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참여자가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③ 자신의 개인적인 대인관계를 명료화해 준다. ④ 현실을 보는 견해를 넓혀준다.

위와 같은 독서치료의 목적을 면면히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책 속 인물과 동일시를 하며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능력과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데에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유용함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 다. 독서치료의 원리

독서치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동안 독자의 내면세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관점 중 본 연구자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행동이 주로 무의식적 동기와 비이성적인 힘, 성적인 충동과 공격성, 초기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독서치료에서 참여자가 문학작품을 읽은 후 치료자와 나누는 상호과정 중에 일어나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과 같은 개념의 근거를 제시한다(유상희, 2008).

이 세 가지의 원리는 순차적 또는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첫째, 동일시(同一視: identification)의 원리가 작용하게 되는데 동일시는 특정 인물의 태도나 감정·행동을 마치 자신의 체험인 것 같이 느끼고, 결과적으로 그 태도나 감정·행동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이 행동하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독서치료의 경우는 독서치료 자료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행동, 태도를 자기의 내면에 받아들여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김현희 외 공저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일반적인 치료과정에서 참여자는 치료자에게 감정적인 애정을 느끼면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만, 독서치료의 경우에는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행동, 태도 등을 이상형으로 하여 그것에 대해 일체를 이루면서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동일시 단계에서 독서치료 치료자는 참여자가 책 속의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

와 자기가 가진 문제와의 비슷한 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등장인물의 행동 동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여러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송규남, 2009).

둘째, 카타르시스(catharsis)는 정신분석에서 감정정화라고 하는데, 치료적인 면에서 볼 때 내담자의 내면에 쌓여 있는 욕구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시켜 충동적 정서나 감정을 발산시키는 것을 말한다(이선영, 2003). 독서치료에 있어서의 카타르시스는 책 속의 등장인물의 감정, 사고, 성격, 태도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내담자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나 사고, 성격, 태도의 투영 즉 간접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심리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면서 통찰이 가능하게 된다(김현희 외 공저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뿐만 아니라 말로 감상을 표현해 나가는 동안 의식적인 억제나 억압이 점차 약해져 감에 따라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현실 생활 중의 인물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손정표, 1999).

위와 같은 카타르시스는 성인들은 대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동들은 활동을 통해 표현하며 이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불가항력적인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동들에게 공포, 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분노 등의 감정들의 대리경험은 책을 통해 가능하며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박금희, 2006).

셋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통찰(洞察: insight)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객관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책 속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으로써 통찰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독서치료에 있어서의 통찰은 지속적인 치료과정을 통해 책 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김현희 외 공저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이 단계에서 독서치료 치료자는 참여자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는 결과적으로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 방법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문제해결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송규남, 2006). 치료자와 참여자의 신뢰가 형성되고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중기에 접어들면 실천 가능한 과제를 주고 다음 회기에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등장인물이 해결했던 방법을 응용한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독서지도와 독서치료의 차이를 인식하여 치료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원리이다. 원리에 입각한 발문을 적절한 시점과 대상에 할 때 치료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 라. 독서치료 자료의 선정 기준

조효숙(2008)은 독서치료의 첫 단계는 참여 아동에게 적합한 책을 골라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독서치료에서 자료의 선정은 효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에 사용되는 자료는 책으로 한정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 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노래의 가사나 영화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사는 일상에서도 자료를 선택할 만한 것들을 늘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주로 글로 된 자료를 중심으로 독서치료 자료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겠다. Hynes와 Hynes-Berry(1994)를 참고하여 주제의 측면과 문체의 측면으로 나누어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 편, 2003).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에 있어서 주제는 문체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래서 문체는 뛰어나고 주제가 빈약한 경우에 독서치료용 자료로 선정되기는 힘들지만, 반대로 사용된 언어나 문장 형태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가 독서치료를 받을 집단이나 개인에게 적합하다면 그 자료는 선정될 수 있다. 독서치료용 자료의 주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네 가지이다. 첫째, 독서치료 자료의 주제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독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자신과 쉽게 동일시할 만한 정서와 경험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주제는 강력한 힘을 갖는 주제여야 한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독서치료 참여자가 아주 강한 영향을 받을 만큼 감동적인 주제를 말한다. 셋째, ‘이해될 만한 주제’의 자료여야 한다는 기준은 독서치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아무리 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도 모호한 면이 많아 독서치료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서로 토론을 하기에 어려운 자료라면 독서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바로 주제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는 희망과 자신감을 담은 내용이면서도 현실감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문체의 네 가지 측면 중 앞의 두 가지는 일반 문학작품의 기준과 비슷하고 뒤의 두 가지는 독서치료만의 독특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이다. 첫째, 인간이 리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독자나 독서치료 참여자로 하여금 반응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리듬은 분명히 작품에 더 강한 힘을 실어준다. 둘째, 독서치료에서든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에서든 ‘이미지가 효과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추상적이고 혼한 이미지보다는 구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 자료는 토의를 위한 촉매이므로 어휘와 어법이 분명해야 한다. 문학적으로 훌륭하다 해도 어휘에 문제가 있다면 독서치료 자료로는 부적합하다. 강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확한 단어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공헌을 하므로 이런 특징의 어휘로 이루어진 자료는 독서치료에 적합하다. 넷째, 복잡성은 글의 길이나 문장 구조의 문제이다. 독서치료를 위해서는 대체로 길이가 짧은 자료가 좋다. 독서치료를 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하며 자료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용이 길면 자료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토의할 시간이 남지 않게 된다. 또한 작품이 길면 참여자들이 너무 여러 가지 자극들에 압도되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주제와 문체의 측면에서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선정 기준을 살펴 보았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Ⅱ-1>과 같다. 표의 왼쪽은 바람직한 독서치료 자료의 성격이고 오른쪽은 바람직하지 않은 독서치료 자료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표Ⅱ-1>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의 성격 구분

구분	바람직한 자료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인 경험이나 정서</li> <li>• 영향력 있는 주제</li> <li>• 이해할 수 있는 주제</li> <li>• 긍정적인 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인 경험이나 정서</li> <li>• 진부한 주제</li> <li>• 모호한 주제</li> <li>• 부정적인 주제</li> </ul>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성이 강한 리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연속적인 리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렷한 이미지</li> <li>• 구체적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부한 이미지</li> <li>• 추상적인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고 정확한 어휘</li> <li>•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렵고 고리타분한 어휘</li> <li>• 모호한 언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당한 길이</li> <li>•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 문장</li> <li>• 산만한 언어</li> </ul>

위 선정기준으로 자료를 선정하되 치유의 효과에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한 독서치료의 효과 즉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의 연쇄반응을 불러오는가? 이다.

독서자료 중 특히 아동 문학은 자기방어를 가장 적게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아동은 상상 속에서 욕구를 충족할 때도 있고 긴장이나 불만을 해소하기도 한다(이상금, 2003). 문자언어는 공격성이 낮고, 특히 그림책은 자기고백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동의 경험과 생각, 감정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기인지에 의한 정서와 행동, 생각의 변화를 이루기에 적합하다.

## 2. 정서지능

20세기 초까지 정서는 감정(feeling)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현재 정서(emotion)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김경희, 1999). 정서는 기억이나 판단을 비롯한 인지학습에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중요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정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형식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가소성이 풍부한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교육은 한층 더 중요하다(김유미, 2005).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저마다 다른 정서를 표현하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정서가 유발되는 개인적인 경험과 기질적인 영향, 변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변인 중 하나가 정서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가.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이다(Salovey와 Mayer, 1990). EQ는 'Emotional Quotient'의 약자로 '감정지수', '감성지수' 또는 '정서지수'로 표현되고,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구광현, 1998).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은 오랜 전통을 가진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지성으로 감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Thorndike는 사회적 지능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능을 '인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즉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영어 논문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은 Payne(1986)의 미출간 박사논문이다. 그러나 정서지능에 대한 초기 인용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논문들은 거의 최근에 와서야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정서지능의 보편화에 가장 기여한 학자가 Goleman(1995)인데 그의 베스트셀러의 원문에 여러 방식으로 소개된 정의는 "정서지능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한다. 즉, 자신을 동기화하고 좌절에 직면하여 이를 이겨내는 능력,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으로 지연시키는 능력,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사고능력을 저해하는 걱정을 삼가는 능력, 공감하고 기대하는 능력 등이다.” (Gerald Matthews외, 문용린 외 역, 2010)

정서지능에 관한 문헌들을 요약하면 사람들은 개별적이지만 상호 관련된 세 가지 능력에 있어서 더 현명하거나 덜 현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능력은 정서를 지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John D. Mayer외, 박재현 외 역, 2005).

즉,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들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을 점검하는 능력, 그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정서지능은 감정 정보 처리능력이며, 감정 정보처리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감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다(김희진, 2004).

#### 나.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정서지능의 요소는 자신과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자신의 삶이라 예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1) 정서인식 능력

정서지능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은 가장 기초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인식하



며 자신의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에 대한 정서의 인식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정서지능의 요소이다. 이것은 다시 언어적인 단서와 비언어적인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때에는 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언어적 측면, 예를 들어 목소리나 말투, 표정 등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김선희, 2004).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 주의를 기울이고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예술 작품 등의 정서적 메시지를 지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영역은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며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없이 정서지능 발달이 시작될 수 없다(강문희, 2006).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응을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감정과 기분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다. 아동들은 동일시를 통해 책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실생활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 2) 정서표현 능력

정서표현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다루려면 먼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야 한다. 광폭한 분노, 우울, 성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부정적인 기본 정서를 다루지 못하고 폭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박부진, 2007).

정서표현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정은희, 2008). 정서표현의 목적은 정서의 균형이다. 예를 들어 화나 억울함을 느꼈을 때 참거나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기와 정도,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 책 속 인물과 동일시를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서표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표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표현이나

조작된 표현에도 민감하다. 사람들은 솔직한 정서표현과 그렇지 못한 정서표현을 구별할 수 있으며, 언어적 의미와 행동적 의미가 다를 때 그 차이도 인식할 수 있다(김은희, 2006).

### 3) 감정이입 능력

감정이입 능력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정서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감정이입 능력의 터득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 고통을 자신에게 이입시키지 못하면 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결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궁핍,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는 ‘이타성’이 생기고 이는 도덕적 원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최소한의 배려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명주, 2002; 송규남, 2009).

대인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능력으로 적절한 책이나 영화가 제공 되었을 때 참여자들은 그 속 등장인물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4)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이란 자기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억제하며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인 “화, 공포, 분함, 무시당함” 등을 가능한 억제하고 긍정적 정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고 관리할 줄 안다는 것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불안, 흥분,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대처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서미숙, 2006).

정서조절은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감정의 상승과 하강 모두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문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충동, 분노, 불안, 우울 등을 조절하고 제

어함으로써 사고 촉진을 가져오고 실패를 겪더라도 재시도하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모두 정서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다(송규남, 2009).

독서치료 과정 중 표현활동을 통해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를 마음껏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 경험이 있어야만 타인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힘이 생긴다.

### 5) 정서활용 능력

정서활용 능력이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유형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 등에서 적응적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선희, 2004).

정서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이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기분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융통성 있는 계획세우기(Flexible Planning),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주의집중의 전환(Mood Redirected Attention), 동기화(Motivating Emotion) 등의 문제해결에서 정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정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사고와 계획 수립, 목표 추구나 문제해결의 능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또한 정서는 내적 정신 능력을 활용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규남, 2009).

## 3. 독서치료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독서치료는 유아에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등 자아에 관련한 연구가 제일 많이 발표되었으며 정서

지능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독서치료 발전은 서구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병원사서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서구의 독서치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교육자, 독서교육자, 문헌정보학자, 문예학자, 민간인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소라(2006)에 의하면 현재 각각 다른 학회 및 협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굳혀가는 단계에 있는데, 김현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독서치료학회는 2001년에 ‘독서치료’라는 책을 펴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라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 아동대상 독서치료 문헌과 아동 입장을 통해 독서치료자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의 학문적 노력은 다양한 민간 독서치료사 과정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영식은 독서교육과 독서치료, 사서학을 연계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간의 연구를 총 정리한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간함으로써 한국 독서치료 이론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독서치료 이론의 힘을 빌기 보다는 자신들이 독서치료 그룹의 일원이 되어 체험한 것을 기초로 독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미나, 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왕따 치료(김은주, 2002), 왕따 당하는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권혜영, 2004), ADHD학생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배성연, 2004), 읽기 부진아(임성관, 2004), 또래관계 향상(문경여, 2005), 긍정적 자아개념(이기영, 2005),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장오숙, 2005), 자기 존중감 및 자기 표현력(황예순, 2006),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이상미, 2007), 아동의 공격성 감소(오계선, 2008),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이영주, 2008), 자아개념과 성취동기(황미숙, 2009), 대인관계와 스트레스(황정미, 2009), 진로 자아 효능감(권은숙, 2010),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이경옥, 2011) 등이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이나 학교 적응 능력이 향상되었고,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대인관계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정서지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게임 활동(한경석, 2003), 미술감상 교육(김신지, 2006), 바둑 교육(이혜정, 2006), 음악 활동(허혜정, 2007), 3분 색채명상(김보경, 2008), 음악치료 프로그램(김은선, 2008), 집단미술치료(여의주, 2008), 원예치료 프로그램(정은희, 2008), 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천혜민, 2008), 공감교육 프로그램(김혜연, 2009), 명화감상 활동(박지연, 2009), 다도 프로그램(김미향, 2010), 전통놀이 프로그램(김미자, 2011) 등이 있다. 미술과,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조작하는 활동 등이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독서치료와 정서지능, 사회성을 관련지어 선행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문규(2003)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중심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감성지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동화영역 뿐 아니라 수필, 시 등 다른 문학 장르를 이용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명창순(2004)은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치료가 친사회적 행동에 효과가 있었으며, 상담 과정 중 관찰을 통한 결과에서도 서로를 칭찬하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태도가 점차 증대되는 등 아동들이 독서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됨을 입증하였다.

이희경(2005)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동시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물인 작품집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선희(2005)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끼치는 영향을 자기소개 유형, 감정의 이해 유형, 상대방에 대한 배려 유형, 공감대 형성 유형, 창의적 표현 유형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독서지도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은희(2006)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나 감정이입과 정서활용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창의성에서는 하위요인 중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배철우(2007)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동요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의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제반 독서의 과정교육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며 풍부한 감정을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박부진(2007)은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이미나(2009)는 상호작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표현력 및 또래유능성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다른 대상, 다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송규남(2009)은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의 향상됨을 확인함으로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정민정(2009)은 새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HTP 검사와 각 회기별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병행하여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정현진(2010)은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이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긍정적 사고 및 태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서치료는 다른 심리치료보다 조금 늦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성적 향상, 가치관 및 행동변화, 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의 연구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연구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각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연구가 많은데 아동과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겪는 정서·행동 문제를 치료하거나 건전한 자아와 가치관 형성을 도와 정성적 과업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독서치료가 유용함을 말해준다. 연구자들의 제언에 따르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다양한 대상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직 취약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를 착안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및 조사 후 센터의 사정(3~4학년 인원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지도 등)을 고려하고 독서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기에 적합한 센터 두 곳을 선정하여 3~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A, B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중 3~4학년 아동 각 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A센터 아동을 실험집단으로 B센터 아동을 통제집단에 할당하였다.

A센터 실험집단의 아동 구성은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이고 그 중 두 명의 여학생은 4학년이고 8명의 아동은 3학년으로 이루어졌다.

<표Ⅲ-1> 연구대상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	6	5
	녀	4	5
학년	3	8	6
	4	2	4
계		10	10

#### 2. 연구도구

##### 가. 정서지능 검사

아동들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지능 검사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문용린(1997)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초등학교 3학년 이상용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영역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 인식과 타인의 정서 인식을 측정한다. 총 8문항으로 문항 번호 1-8번이다.

둘째, 정서표현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 표현을 측정한다. 총 7문항으로 9-15번이다.

셋째, 감정이입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의미 있는 또는 무의미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측정한다. 총 7문항으로 16-22번이다.

넷째,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고 총 15문항으로 23-37번이다.

다섯째, 정서활용은 대인관계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융통적인 계획과 창의적 사고, 새로운 주의 전환을 측정하고 총 10문항으로 38-47번이다.

정서지능 검사지 채점 방법은 1-37번 문항은 항상 그렇다(1번). 3점. 가끔 그런 편이다(2번). 2점. 그렇지 않다(3번). 1점으로 9-15번은 반대의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38-47번 문항은 1번은 2점, 2번은 1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부여한 점수는 모두 역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해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2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Ⅲ-2>는 정서지능 검사의 6개 하위영역 문항번호와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Ⅲ-2> 정서지능 검사의 6개 하위영역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alpha$
정서인식	1-8	8	.763
정서표현	9-15*	7	.699
감정이입	16-22	7	.510
정서조절	23-37	15	.671
정서활용	38-47	10	.554
전체	1-47	47	.829

주. 9-15\*은 역산 문항임.

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및 자료 선정

1) 프로그램의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독서치료 이론서와 타 여러 논문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연구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내용과 활동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활동목표와 내용, 각 회기별 이용한 책의 제목을 <표Ⅲ-3>에 정리를 하였다.

<표Ⅲ-3>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요

회기	단계	목표	활동내용	준비물
1	초기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li> <li>• 우리들만의 라4 - 게임</li> <li>• 나 소개하기-간단한 문장 완성</li> <li>• 집단규칙 정하기</li> </ul>	나를 소개하는 활동지

2		나의 장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게임.</li> <li>• &lt;점&gt;, &lt;치킨 마스크&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li> <li>• 20년 후 나의 모습.</li> <li>• 느낌 나누기</li> </ul>	활동지, 필기도구	
3	중 기	나의 감정을 알고 친구와 나의 다른 점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위바위보 게임</li> <li>• &lt;당나귀 덩키덩키&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가치관 경매.</li> <li>• 감정 일기장 만들기.</li> </ul>	색지, 활동지	
4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과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카드 알아맞히기.</li> <li>• &lt;고함쟁이 엄마&gt; &lt;나, 화났어!&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화가 난 내 머릿속 표현.</li> <li>• 화가 난 엄마의 마음 속 표현.</li> </ul>	감정카드, 활동지	
5		부정적 감정 해소경험. 긍정적 표현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감고 시간 체크하기.</li> <li>• &lt;눈물바다&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풍선 격파-격정거리 날리기.</li> <li>• 느낌 나누기.</li> </ul>	풍선, 타이머	
6		친구의 장점을 찾아 언어로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콜릿 높게 쌓기.</li> <li>• &lt;룰루와 톱&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동시 '세희와 채정이' 낭송</li> <li>• 모방시 짓기.</li> <li>• 느낌 나누기.</li> </ul>	색지와 색연필, 초콜릿	
7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끝말 잇기.</li> <li>• &lt;겹쟁이 율리&gt;, &lt;겹쟁이 꼬마유령 부우&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용기가 필요한 순간 "토론"</li> <li>• 마음에 드는 한 가지씩 다짐!</li> </ul>	활동지, 필기도구	
8		긍정적으로 느끼는 바를 솔직히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뭐가 달라졌을까?</li> <li>• &lt;뽕지머리소동&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짝을 이뤄 인터뷰 후 발표하기.</li> <li>• 친구의 장점 세 가지 말해주기.</li> <li>• 느낌 나누기.</li> </ul>		
9		후 기	우리 가족의 긍정적 미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빙고 게임.</li> <li>• &lt;행복한 돼지&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행복한 우리 집 그리기.</li> <li>• 느낌 나누기.</li> </ul>	8절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10		긍정적 자기상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위바위보 : 스티커 붙이기.</li> <li>• &lt;너는 특별하단다&gt; 읽고 이야기 나누기.</li> <li>• 나에게 있는 별표와 점표는?</li> <li>• 돌아가면서 칭찬해주고 별표와 점표를 떼어 주기.</li> <li>• 자기최고상</li> </ul>	스티커 (별, 점 모양), 상자
11	종결	프로그램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빙글빙글 세탁기 게임.</li> <li>• 나의 미덕 뽑아서 마음에 담기.</li> <li>• 자신에게 편지 쓰기</li> <li>• 행운권 추첨.</li> <li>• 평가 및 소감에 대해 나누기.</li> </ul>	편지지

각 회기는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으로 구성을 하여 진행하였으며 회기 당 소요시간은 90분~100분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간단한 게임이나 활동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동일시를 유도하는 발문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단한 활동지로 작성해보기도 하였다. 충분한 나눔이 이뤄진 후 표현활동을 하여 감정을 정화시킨 후 자신의 느낌과 학교나 가정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상을 그려보았다. 마음 속 또는 들썩 짝을 지어 다짐을 하거나 전체 앞에서 각자의 느낌을 나누며 마무리를 하였다.

## 2) 자료 선정

독서치료의 과정에서 독서 자료의 선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치료의 성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대상자의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적합한 자료의 선정은 독서치료의 원료인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의 과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독서 자료는 이영식(2010년 3월)의 <그림책 및 아동문학>의 독서치료용 그림책 목록과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편찬한 2009, 2010년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 한국독서치료연구회의 추천도서, 공공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독서치료를 위한 그림책 목록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줄거리가 확실하여 아동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일 것. 둘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흥미를 둘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 셋째, 책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이 없도록 면수가 많지 않은 그림책.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서지능의 영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일 것.

이상의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를 <표Ⅲ-4>에 정리를 하였다.

<표Ⅲ-4> 도서 선정 자료 내용 및 선정 이유

도서명	자료 내용 및 선정 이유
<점> 피터 레이놀즈 지음. 문학동네, 2008	주인공 베틀이 교사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재능을 발견해 가는 과정. 베틀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동생에게 도움을 주게 되리라는 여운이 남아있는 자료이다.
<치킨 마스크> 우쓰기 미호 지음. 책읽는곰, 2008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치킨 마스크는 다른 마스크들만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혼자가 되곤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 깨닫게 되는 자료로써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친구들의 모습이 보인다.
<당나귀 덩키덩키> 로저 뒤바쟁 지음. 웅진주니어, 2002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동물처럼 하려는 주인공이 결국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덩키덩키는 자신감을 찾게 된다.
<고함쟁이 엄마> 유타 바우어 지음. 비룡소, 2006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나에게 소리쳐서 내 몸이 산산 조각이 나서 각 각 알 수 없는 곳에 흩어지고 만다. 마치 내 마음처럼. 흩어진 몸의 조각을 하나하나 찾아 연결해주며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 재미있으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자료이다.
<나, 화났어!> 제인 클라크 글. 찰스 퓨지 그림. 미세기, 2009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눈물바다> 서현 글 그림. 사계절, 2010	그림 속에 옛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숨은그림찾기처럼 들어가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 부모들 때 문 속상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함께 정화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p>&lt;물루와 톱&gt; 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지음. 웅진주니어, 2007</p>	<p>서로 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친구 늑대와 토끼가 친구가 되고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모습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 친구의 다른 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거쳐 다시 만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자료이다.</p>
<p>‘세희와 채정아’ 동시, 임세희 지음</p>	<p>또래 친구가 쓴 동시여서 좀 더 친근할 것이고 나도 동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옆 친구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p>
<p>&lt;겹쟁이 율리&gt; 앤서니 브라운 지음. 웅진닷컴, 2002</p>	<p>연약한 주인공이 자신감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결국 자신과 여자 친구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표현과 익살스런 그림이 함께 녹아든 자료이다.</p>
<p>&lt;겹쟁이 꼬마유령 부우&gt; 브리짓 민느 글. 리스케 레멘스 그림. 웅진주니어, 2008</p>	<p>겹이 너무 많은 유령 부우.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는데 쉽지 않다. 결국 부우가 놀라게 해야 하는 집의 꼬마와 함께 연습을 통해 그 집 부모를 놀라게 하는데 성공하게 된다.</p>
<p>&lt;꽁지머리 소동&gt; 로버트 먼치 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폴빛, 2007</p>	<p>스테파니는 개성 있는 소녀로 남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친구들이 늘 스테파니를 따라하고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찾는다. 마지막에 스테파니의 재치로 모든 학교 친구와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장면이 통쾌함을 준다.</p>
<p>&lt;행복한 돼지&gt; 헬렌 옥슨버리 지음. 웅진주니어, 2008</p>	<p>자신의 집에 불만을 갖고 있던 돼지부부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부는 행복하지 않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로 행복을 주는 가치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료이다.</p>
<p>&lt;너는 특별하단다&gt; 맥스루카도 글. S. 마르티네즈 그림. 고슴도치, 2002</p>	<p>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며 단지 나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p>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여기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에 사용한 자료들만을 정리하였다.

### 3. 연구설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참여할 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집단에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측정도구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했다. 도식화하면 [그림Ⅲ-1]과 같다.

실험 집단	O <sub>1</sub>	×	O <sub>3</sub>
통제 집단	O <sub>2</sub>		O <sub>4</sub>

O<sub>1</sub> O<sub>2</sub> : 사전검사

O<sub>3</sub> O<sub>4</sub> : 사후검사

× : 실험처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림Ⅲ-1] 실험설계

### 4. 연구절차

2010년 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센터의 3~4학년 아동 수와 센터의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10명 이상의 아동 수가 있으며 독서지도가 이루어진 경험이 있으며 책의 보유량이 비교적 많은 A, B 두 지역아동센터에 협조를 구해 2011년 1월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고 그 중 A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1~2월 11회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2월에 두 집단에 다시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 진행 절차는 <표Ⅲ-5>와 같다.

<표Ⅲ-5> 연구의 진행절차

실험단계	내용	일정	대상집단
연구대상 선정	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여 3~4학년 아동의 구성과 센터 분위기를 조사한 후 센터에 협조 요청함.	2010년 12월 1일~12월20일	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사전검사 및 집단구성	정서지능 검사 후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 구성	2011년 1월 3일~4일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처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2011년 1월 4일~2월 10일	실험집단
사후검사	정서지능 검사(사전검사와 동일)	2011년 2월10일~12일	실험집단 통제집단

##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분석과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한 활동지 작성 내용, 관찰한 내용, 평가지 내용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가. 검사지 반응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의 사전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 나. 활동지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통계적 검증에 따른 검사지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지 및 면담, 관찰 내용, 평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 상담 때 회기마다 책의 내용에 부합하는 발문과 응답, 활동지 작성과 표현 활동 후 느낌을 나누었고 연구자가 관찰하고 A센터 담당 선생님, 개별 아동과 면담한 내용을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주도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정서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통계적 결과 분석

#### 가. 정서지능 사전 동질성 검증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을 무선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간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 앞서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IV-1>과 같이 나타났다.

<표IV-1> 집단별 정서지능 사전검사 결과 비교

하위요인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식	16.7	2.79	15.2	3.68	1.042	.325
정서표현	13.9	2.64	13.0	3.06	.569	.583
감정이입	11.6	1.71	11.5	2.64	.090	.930
정서조절	27.2	4.26	27.1	3.63	.053	.959
정서활용	13.0	2.21	14.6	1.78	-1.596	.145
전 체	81.7	7.60	81.4	11.09	.063	.951

<표IV-1>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검사에 대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에 실시한 정서지능 검사의 전체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063, p>.05$ ). 즉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정서지능과 하위요인에서도 동질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가설의 검증

##### 【가 설】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만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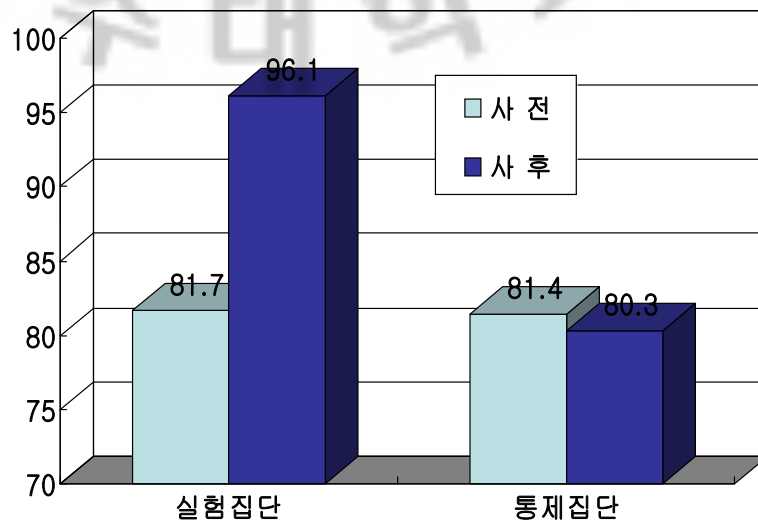
<표IV-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사전 정서지능 검사결과 비교

하위요인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정서인식	2.5	3.31	-1.1	3.00	3.193*	.011
정서표현	2.4	3.37	-0.7	1.34	2.653*	.026
감정이입	3.0	2.36	0.8	1.48	2.703*	.024
정서조절	5.2	5.01	0.7	3.09	2.341*	.044
정서활용	1.3	2.31	-1.1	1.10	3.774**	.004
전체	14.4	10.74	-1.1	4.22	4.223**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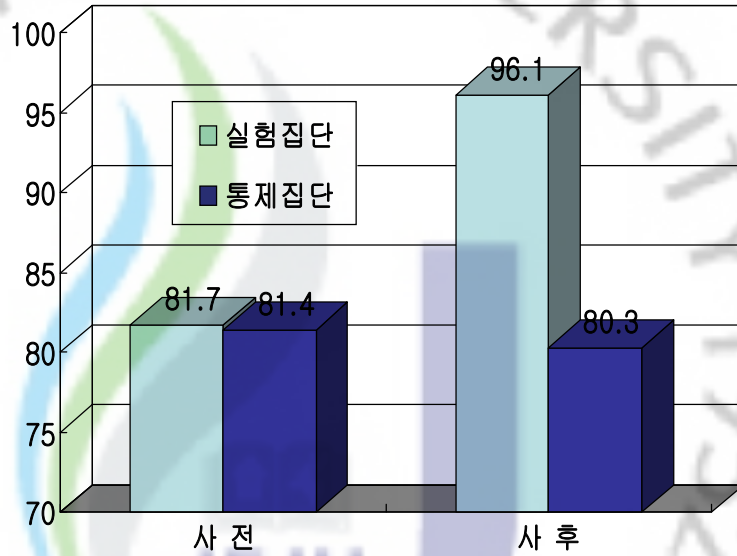
\* $p<.05$     \*\* $p<.01$

<표IV-2>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정서지능과 하위영역의 사전과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값으로 t-검증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지능 전체 점수에서 실험집단은 평균 14.4점 증가했고, 통제집단은 1.1점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t=4.223$   $p<.01$ ). 5개의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던 통제집단보다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즉,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지능 사후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정서지능에 대해 사전과 사후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1] 집단 간 사전-사후 비교



[그림 IV-2] 정서지능 사전-사후 비교

## 2. 질적 자료 분석

앞서 통계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회기별 전체 분위기와 게임, 표현 활동 시의 관찰 내용, 활동지 및 소감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회기별 활동 내용에 관한 질적 분석

회기별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동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적인 언행보다는 참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압했던 감정을 분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면서 나는 물론이고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막상 학교나 센터에서 돌발 상황이 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면 참기 힘이 들고 집단에서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였

다. 그런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을 할 때는 즐겁고 책을 읽어주면 왠지 편안한 느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행동과 표정에서도 알 수 있었다. 발문에 답을 해야 할 때 지루하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움은 없었다고 하였다.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한 후 느낌을 다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반응은 회기가 거듭될수록 많아졌다. 특히 중반 후 친구와 짝을 지어 칭찬의 말을 하는 활동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칭찬의 말을 하기 위해 친구를 관찰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칭찬이 되고 친구가 기분 좋아질까를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감정이입과 공감의 표현까지도 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회기별 질적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은 <표IV-3>과 같다.

<표IV-3> 회기별 활동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회기	목표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과 자기 소개하기	<p>** 나를 소개하는 5문장에는 모든 아동들이 이름과 학년 학교를 공통적으로 쓴 후 성별이나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으로 썼다.</p> <p>** 여학생들은 가장 화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공부나 성적, 친구와 동생 들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라고 했다. 남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컴퓨터나 게임, 돈을 쓴 남학생이 2명 있었다. 남학생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욕, 때리는 것, 놀리는 것이라고 했다. 후다닥은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했다.</p>
2	나의 장점 알기	<p>* 축구나 야구, 달리기, 운동을 잘 한다(5명). 그림그리기와 만들기를 잘 한다(3명). oo을 잘하고 싶다(1명). 모르겠다(1명).</p>
3	나의 감정을 알고 친구와 나의 다른 점 인식하기.	<p>** 책 읽은 느낌 :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모두 자기 얘기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져야겠다.</p> <p>** 가치관 경매 후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모두 다른 것을 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해서 짜증이 난다.</p>

4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과 조절하기.	<p>** 화가 난 내 머리 속 그리기 : 빨간색과 검정색을 사용함. 분노, 짜증, 억울이란 낱말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머리 뚜껑이 열리거나 폭발 장면을 그림. 너구리는 소주가 넘치며 빨간 술이 흐르는 장면을 후다닥은 술과 담배를 그림.</p> <p>** 화난 엄마(아빠나 할머니)의 마음 속 그리기 : 앞서 그린 것보다 좀 더 단조롭게 표현됨. 4학년 여학생 두 명은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을 그렸고, 그 외 아동은 체벌하는 장면이 그려짐.</p> <p>** 활동 후 소감 :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어른들도 화가 나는 것을 참기 힘들 것 같다.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것은 힘들다. 집에선 참을 수 있는데 학교에선 못 참겠다.</p>
5	부정적 감정 해소경험. 긍정적 표현 방법 찾기.	<p>** 걱정거리 : 공부, 학교, 시험, 학원, 친구, 욕 쓰거나 놀리는 것, 폭력,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갈등, 무서움</p> <p>** 활동 후 소감 : 후련하다. 진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진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신기함. 재미있다. 다시 하고 싶다. 잘 터지지 않을 때는 열 받는다.</p>
6	친구의 장점을 찾아 언어로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 경험.	<p>** 책 읽은 느낌 : 정말 늑대와 토끼라는 사실적 생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유재석과 박명수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유명인을 예로 들었더니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함.</p> <p>** 동시 읽고 모방시 짓기 : 칭찬 칭찬 반복해서 나오는 동시를 서로에게 들으니 모두들 쑥스러워 하면서도 입가에 함박웃음.</p>
7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기.	<p>** 용기란? 겁이 없는 행동.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 형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 밤에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 재미있게 컴퓨터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스스로 끄는 것.</p> <p>** 나의 다짐 : 화장실 혼자 가기(2명). 수업시간에 발표하기(3명). 컴퓨터 스스로 끄기(4명). 친구의 부탁 거절하기(1명).</p>
8	긍정적으로 느끼는 바를 솔직히 표현하기.	<p>** 중간 점검 : 덜 떠드는 것 같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4학년 언니와 친해졌다. 잘 모르겠다.</p> <p>** 책 읽은 느낌 : 주인공이 부럽다. 못된 성격인 것 같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다. 저런 학교에 다니고 싶다. 개성 있는 것 같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p> <p>** 활동 후 소감 : 기분이 좋다. 장점을 바로 앞에서 말하려니 좀 힘들다. 장점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쑥스럽다.</p>
9	우리 가족의 긍정적 미래 설계.	<p>** 책 읽은 느낌 : 나도 보물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돼지 부부가 너무 오버한다.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p> <p>** 행복한 우리 집 그리기 : 편안한 집(3명). 행복한 집(3명). 썩소집(1명). 더러운 집(1명). ???집(1명). 색깔 있는 집(1명)</p> <p>** 활동 후 소감 : 보물을 발견하고 싶다(송이). 신사가 그린 집에서 살고 싶다(후다닥). 마음껏 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신사). 컴퓨터가 2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구리).</p>

10	긍정적 자기상 찾기	<p>* 스티커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마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남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남의 마음.</p> <p>** 스티커 떼기 : 스티커 땔 때 아프다. 모두 떼어지고 나니 좀 허전하기도 하다. 평상시엔 잘 나오지 않는 칭찬의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좀 어색하지 않다. 장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p> <p>** 자기최고상 : 열심히 참여한 상(2명). 노력상(2명). 스마일상(2명) 감정표현상(1명). 번뜩이는 상(1명). 최고상(1명)</p>
11	프로그램 돌아보기.	<p>** 자신의 미덕을 찾고 미덕에 대한 실천 방법을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표현.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다.</p>

#### 나. 회기별 관찰 내용 분석

회기별로 관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초기에 만난 아동들 대부분이 매우 산만하였고 말과 행동이 거칠었다. 자신감이 매우 부족하였고, 책을 읽어주면 좋아하며 앞으로 다가오곤 하는 행동에서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다른 친구로 인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꺼져!’ 등의 말을 하거나 연필이나 지우개를 던지며 비키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선 서로 강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으나 개별적으로 말을 나눌 때는 순수하고 수줍은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뛰어다니는 행동이 없어졌으며 거친 말이나 행동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서로 놀리기만 하던 아동들이 칭찬의 말을 주고받으며 수줍어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긍정적인 단어를 찾는 데 조금은 쉬워졌다는 반응도 보였다.

후반기에도 역시 책을 앞에서 잘 보려는 태도나 행동을 취하긴 했으나 초반과는 다르게 말로 되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모습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IV-4>는 회기별 관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IV-4> 회기별 관찰 내용 분석 결과 요약

회기	목 표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과 자기 소개하기	첫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으로 들어섰더니 아동들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책상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	나의 장점 알기	그림책을 조금 과장하며 읽어주었더니 재미있어 하면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책의 내용에 대한 발문이 길어지면 지루해 하여 간단하며 핵심적인 부분만으로 추려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3	나의 감정을 알고 친구와 나의 다른 점 인식하기.	가치관 경매를 할 때 구석에서 끼리끼리 모이곤 했던 아동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른 아동들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모습, 또 자신과는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4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과 조절하기.	감정카드 게임을 할 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나왔을 때 화를 참기 힘들어 했으나 그래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을 그럴 때 무척 과격하면서도 신나게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5	부정적 감정 해소경험. 긍정적 표현 방법 찾기.	‘눈물바다’라는 책을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며 서로 그림을 보려고 책을 차지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주인공에게 공감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진 회기였다. 걱정거리를 말할 때는 너도나도 의견을 내놓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걱정거리를 터뜨리려고 분주한 모습이었다.
6	친구의 장점을 찾아 언어로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 경험.	비난하거나 놀리는 말을 자주 하던 아동들이 친구의 장점을 찾는 데는 자신의 장점을 찾는 것보다 더 빨랐다. 모방시로 쓴다는 점도 아동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준 것 같았다. 시를 친구에게 직접 읽어줄 때는 쑥스러워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7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기.	겉쟁이 율리의 모습을 비웃기만 하던 아동들이 자신이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마음과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차리는 모습이다. 자신의 다짐을 필통 속에 잘 보관하는 아동의 행동이 눈에 띈었다.
8	긍정적으로 느끼는 바를 솔직히 표현하기.	책 읽기 후 남과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다는 반응들.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친구에게서 남과 다른 그 친구만의 장점을 찾아 마주보며 말로 표현하기로 하였더니 서로 못한다고 저항을 함. 막상 닥치니 쑥스럽지만 모두들 거부하지 않고 다양한 장점을 찾아 말해주는 모습에서 지난 6회기보다 발전된 모습이 발견됨.

9	우리 가족의 긍정적 미래 설계.	책 속 주인공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 너도나도 이야기를 활발하게 진행하다 막상 현재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가 이어짐. 미래의 행복한 우리 집을 그려보는 시간엔 너도나도 서로의 그림을 훑쳐보며 더 좋은 집을 꾸미려 애쓰는 모습이였다. Best House상은 신사가 받았다.
10	긍정적 자기상 갖기	이미 자주 접해본 그림책이라 내용에 대해 술술 나왔다. 스티커를 떼어내는 재미에 서로 장점을 찾아 웃으며 칭찬하는 모습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11	프로그램 돌아보기.	아동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처음보다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 언어와 행동에 있어 순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다. 만족도 및 소감문 내용 분석

##### 1) 만족도 분석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프로그램 만족도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IV-5>와 같다.

모든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고, ‘매우 도움됨’ 또는 ‘도움됨’의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다. 다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50%(5명)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40%(4명)로 나타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IV-5>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문항	질문 내용	답변 내용
1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자신과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됨 (3명) ② 도움됨 (5명) ③ 보통 (2명) ④ 별로 도움안됨 (0명) ⑤ 전혀 도움안됨 (0명)
2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됨 (3명) ② 도움됨 (6명) ③ 보통 (1명) ④ 별로 도움안됨 (0명) ⑤ 전혀 도움안됨 (0명)

3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됨 (2명) ② 도움됨 (5명) ③ 보통 (3명) ④ 별로 도움안됨 (0명) ⑤ 전혀 도움안됨 (0명)
4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부정적 감정을 참고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됨 (5명) ② 도움됨 (5명) ③ 보통 (0명) ④ 별로 도움안됨 (0명) ⑤ 전혀 도움안됨 (0명)
5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됨 (3명) ② 도움됨 (5명) ③ 보통 (2명) ④ 별로 도움안됨 (0명) ⑤ 전혀 도움안됨 (0명)
6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그림책 중 BEST 3	① 눈물바다 (7명) ② 겁쟁이 율리 (6명) ③ 치킨 마스크 (4명) ③ 꿈지머리소동 (4명) ⑤ 행복한 돼지 (3명)
10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5명) ② 그렇다. (4명) ③ 보통 (1명) ④ 별로 그렇지 않다. (0명)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명)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그림책의 순위를 정한 것은 독서치료에서의 도서 선정의 중요성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아동들에게 책을 친근하고 재미도 줄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도서 목록을 만드는 것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2) 소감문 분석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으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앞으로의 변화를 다짐하는 내용, 종결에 대한 아쉬움의 내용이 가장 많았다. 가장 도움되었던 활동에는 풍선 격파를 하여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시원했다 등의 반응이 가장 많았고, 감정카드 맞추기 하면서 감정에 대해 알게 된 점이 도움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모방시 짓기와 이름으로 삼행시 등 생각해내어 글로 쓰는 활동을

힘들어 하였고 칭찬할 말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였다.

소감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IV-6>과 같다. 아동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화를 조절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을 아동들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 또한 드러났다. 아동들은 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통한 감정 해소를 더 선호했으며 생각을 요하고 글로 쓰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표IV-6>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

질 문	답변 내용
도움 되었던 활동과 이유	책 읽어줄 땐 편안함(2명). 걱정거리를 적은 풍선을 격파할 땐 진짜 시원하고 통쾌했다(3명). 감정 카드 게임과 자음 게임 등 재미있었다(2명). 행복한 우리 집 그리기를 하며 정말 행복했다(1명). 칭찬하고 스티커 떼어 주기 할 때 기분이 좋았다(1명).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1명).
힘들었던 활동과 이유	모방시 짓고 낭송해주기(3명). 자신에게 편지 쓰기(3명).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2명). 글씨 쓰는 것이 싫다(2명).
프로그램 마친 소감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끝나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구름, 나비). 친한 언니가 생겨서 좋다(나비). 나와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 좋았다(나나). 엄마 마음 그럴 때 엄마 생각하게 됨. 앞으로는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꾸리).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다(타잔, 후다닥). 친구들과 친해졌다(신사). 그림책이 재미있었다(너구리). 게임할 때 좋았음(송이). 그럭저럭~ 그냥 함(노노).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독서치료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송규남(2009)이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정서지능을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한 이희경(2005), 김선희(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에 대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활동과 결합하여 진행하였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후검사에 있어서 정서지능과 그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을 관찰하면서 실제로 아동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활용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아동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허철수(1997)의 제주도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이 감정이입과 정서활용능력이 중학생들보다 매우 높으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중학생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검사지 반응 분석결과의 보완을 위한 소감문 및 관찰 내용 분석 결과,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의 증진, 정서 표현, 정서조절을 하면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초기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나 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거친 행동과 공격적인 말투로 표현했던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하게 됨으로써 행동과 말투에서 순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초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아동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했지만 진행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등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넷째, 대부분 책을 스스로 읽고 글을 쓰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아동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책을 보다 가까이 하게 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관련 활동 중 글쓰기의 경험도 힘들었다고 했지만 끝까지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검증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해마다 늘어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 실시된 연구이다.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좀 더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다른

현장에서도 다양한 접근으로 개발되고 실시되길 바란다.

제주도내 각 학교마다 있는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정서지능 뿐 아니라 아동기에 발달과업의 여러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자칫 인지적인 교육으로 치우칠 수 있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책이 주는 힘을 인식하여 정서교육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대상 아동의 최대 인원의 수가 5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하여 효과성을 확인했으면 한다.

다섯째,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독서치료 이전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책 읽어주기의 장점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 또는 예비부모 교육 집단을 실시하는 것도 권장하고 싶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2006). 아동감성촉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3집.
- 김경숙(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1999).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난희(2009). 독서치료활용 공감증진프로그램이 공감능력과 또래 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2005). 讀書療法 相談이 初等學生의 自我尊重感 向上에 미치는 影響.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5).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끼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2008). 독서치료가 初等學生의 社會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진(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5).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 서울: 학지사.
- 김은희(2006). 전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근 외 5인(2008).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적 독서치료.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 편. 서울: 학지사.
- 김지혜(2008).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관계.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1997). 정서지능의 계발과 활용. 정서지능(EQ)의 계발과 활용방안 탐색. '97 청소년 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철수 외 14인(2006). 날아라 높이높이. 독서치료 임상사례집(10). (사)세계독서치료학회편. 도서출판 영문.



- 김현희 외 16인(2003).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현희 외 11인(2006).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현희(2004). **표현예술치료로서의 독서치료**. 독서치료연구 창간호.
- 라은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명창순(2004). **독서요법을 통한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여(2005).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동화 선정 및 프로그램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피터 셀로비 교수 초청 강연회 자료집.
- 문용린(2005).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박경애(2006).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현(2005).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철우(2007). **동요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지능향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숙(2006). **정서지능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지능과 교우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표(1991). **신독서지도방법론**. 서울: 태일사.
- 송규남(2009).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2004). **아동의 심리적 문제의 진단과 이해**. 독서치료연구 창간호.
- 양명숙(2005).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입문기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한 외 4인(2007). **독서치료와 어린이 글쓰기지도**. 대구: 태일사.
- 어린이도서연구회(2010). **어린이권장도서목록**.
- 오옥선(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 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미(2002).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희(2008).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숙(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2011). 학교 부적응 아동에 대한 동시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2009). 상호작용적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표현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금(2003).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서울: 사계절.
- 이서연(200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3).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0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은(2007).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2001).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치료 적용과 전망. 아동연구 Vol. 15, No. 1
- 이현아(2009). 영화를 활용한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2005). 동시를 활용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2003). 심상치료 초기 「마음문제점정리작업」이 아동의 정서지능(EQ)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명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관(2009). 책과 함께하는 마음놀이터(1). 서울: 시간의 물레
- 임성관(2008). 책 좋아하는 아이 만들기. 서울: 시간의 물레
- 장현영(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정(2009).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  
술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 정순화 · 임정하(2008).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은희(2008).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정서표현 변화에 관한 연구. 제  
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진(2010).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교우관계와 공감능력에 미  
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연(2005).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효과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원윤(2008). 발달적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숙(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감·자아존중감·정서조  
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성혜(200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옥 · 한윤옥(2006).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독서치료 사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 17 No. 1.
- 하대현(1996). 정서지능의 지능성: 그 이해와 오해. 아동 · 가족복지연구 Vol 1.
- 하수민(2008). 시치료 방법을 활용한 시교육 방안 연구 : 정서 표출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 편(2003).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한복희(2001). 독서지도의 방법으로서의 독서치료 연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  
논집 제8편.
- 허지연(2007).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철수(1997).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별 특성 분석. 정서지능(EQ)의 개발과 활용  
방안 탐색. '97 청소년 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황금숙(2004). 독서치료의 이해. 독서치료연구 창간호.

황문규(2003). 문학중심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감성지능  
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iarrochi Forgas Mayer(2005).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박  
재현 · 장승민 · 권성우 역.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Doll, B. & Doll, C.(1997). *Case Approach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A: Brooks. Cole Publishing Co.

Doris Maertín & Karin Boeck(1997). *E.Q.* 홍명희 역. 감성지능 개발 학습법.  
서울: 해냄.

Gerald Matthews · Moshe Zeidner · Richard D. Roberts(2010). *Emotional  
Intelligence* 문용린 · 곽윤정 · 강민수 · 최경아 역.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서울: 학지사.

Hynes & Hynes-Berry(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Joseph Gold(2003). *Bibliotherapy*. 이종인 역. 비블리오테라피. 서울: 북키앙

<Abstract>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On Children's Emotions Intelligence**

**Kim, Hee-j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how bibliotherapy group counselling effect the emotions intelligence of childre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is established.

<Research question> Does the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improve the emotion intelligence of children?

To answer the question of this research above, the subject of research was selected,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followed by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group and control group, application of reading education program, after-the-fact survey, statistical processing and data analysis.

The subjects Jeju City Children's welfare center, located two locations chosen for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grades 3-4 the experimental group

---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10 people, consisted of a control group was 10.

In this study, to measur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ests that are commonly used as a tool produced by Moon Yong-rin(1997) third grade or later, an autopsy was use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cale subdivisions are the cognition of emotion, the expression of emotion , empathy, the control of emotion, and the utilization of emotion.

Used in this study, a bibliotherapy group counselling treatment program and other bibliotherapy literature treatment programs conducted at several pape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researchers on the topic of this paper is appropriate content and activities are determined by total of 11 session will be reconstructed.

For the analysis of data, Windows SPSS 17.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t-Test. To complement the statistical validity of the creation and questions and answers, observations and information on whether and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First,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reated with the bibliotherapy croup counseling turned out to make significant improvement in emotion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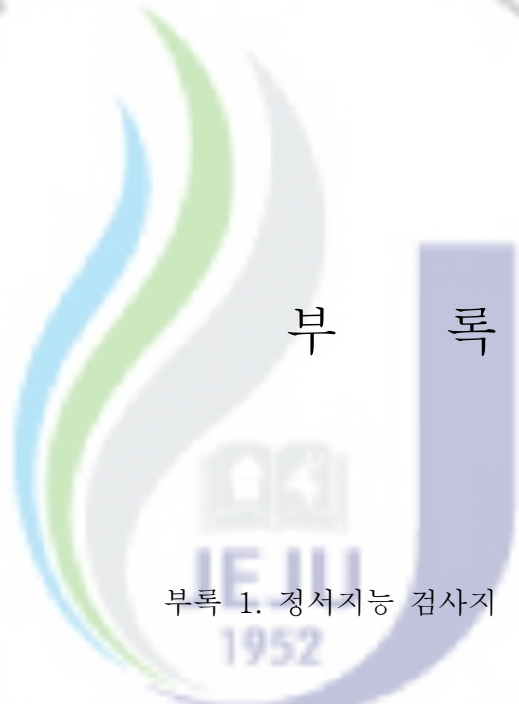
Second,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that treated with the bibliotherapy croup counseling turned out to mak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cognition of emotion, the expression of emotion, empathy, the control of emotion, and the utilization of emotion.

Thir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from qualitative analysis indicated that children have experienced improvement in self-understanding and the expression of emotion, empathy, the control of emotion development of peer relationship through positive interaction and

familiar relationship between group members.

Through these results, we corroborated our hypothesis that the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effectively improved the emotion intelligence. Specially, did not attempt to target local children's centers were children. The study has brought positive results. Recently a growing area to apply for the children's center has been reference.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 부 록

부록 1. 정서지능 검사지

부록 2. 회기별 프로그램 계획안

부록 3. 평가지

부록 4. 프로그램 활동지 예



부 록 1.

# E I 검사

본 검사는 정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자신에게 보다 가까운 번호를 고르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연구자 : 김 희 정

이름 : \_\_\_\_\_ 성별 : 남·여

※ 다음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1. 나는 내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내 기분이나 감정)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 나는 내가 화나 짜증이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 나는 내가 기쁘지, 혹은 슬픈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가 지루해 하는지, 불안해하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건지 흥분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6. 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7. 나는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8.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9. 나는 동생이나 동네 꼬마가 귀여워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0.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1. 나는 엄마(아빠)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2.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는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3.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는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4.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5. 길에서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6. 나는 친구가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7.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8.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9. 엄마나 친구의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0.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은 것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1.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2. 나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3.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4.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5. 나는 괴로울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6.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7.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8.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9.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0.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1.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는 웃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2.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4. 엄마(아빠)께서 화가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5.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도록 나는 양전하고 똑똑하게 행동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6.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7. 동생(친구)이 울 때, 나는 동생(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8.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나는\_\_\_\_\_  
 ①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② 잃어버린 숙제가 자주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39.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친구 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때, 나는\_\_\_\_\_  
 ①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40. 나에게 화를 내거나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나는\_\_\_\_\_  
 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다.  
 ② 똑같이 화를 내거나 괴롭힌다.
41. 엄마께서 야단을 치실 경우, 나는\_\_\_\_\_  
 ① 엄마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② 엄마가 미워지고 짜증이 난다
42.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께서 나만 야단치실 때,  
 나는\_\_\_\_\_  
 ① 나도 잘못을 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②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43.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나는\_\_\_\_\_
- ① 오늘 시험을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② 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 된다
44.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나는\_\_\_\_\_
- 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45.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험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나는\_\_\_\_\_
- 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46. 악기나 운동을 배우는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나는\_\_\_\_\_
- ① 잘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화를 참고 더 열심히 연습한다.
  - ②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덥고 졸려서 짜증이 날 때, 나는\_\_\_\_\_
- 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 수고 하셨습니다! \*\*\*\*\*

부록 2. 회기별 프로그램 계획안

회기	1	도서명	전체 도서 목록
목표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하기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전개	-우리들만의 라4 “웃어라! 말하라! 즐겨라! 좋아라!” -신체를 이용한 팀 빌딩 게임. -나 소개하기 : 간단한 문장 완성 후 발표하기 -집단 규칙 정하고 함께 읽기.		
마무리	다음 시간 안내하고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기.		
회기	2	도서명	<점>, <치킨 마스크>
목표	나의 장점 알기		
도입	자음 게임(초성 게임)		
전개	-책의 표지를 보며 제목 알아맞히기. -연상되는 낱말 이어가기. -책 읽어주기.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나의 재능 그릇 채우기. -20년 후 나의 모습 그리기.		
마무리	다음 시간 안내하고 나의 장점은 OO입니다! 외치고 마침.		
회기	3	도서명	<당나귀 덩키덩키>
목표	나의 감정을 알고 친구와 나의 다른 점 인식하기		
도입	가위바위보! 지기 게임/이기기 게임		
전개	-책 읽어주기. -덩키덩키가 나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 -가치관 경매 후 소감 나누기.		
마무리	A4 한 장으로 만드는 책을 접은 후 매일의 감정을 기록하기로 함.		
회기	4	도서명	<고함 쟁이 엄마>, <나, 화났어!>
목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과 조절하기		
도입	감정카드 알아맞히기		
전개	-최근에 얼마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 나누기. -책 읽어주기. -책에 대한 느낌 자유롭게 나누기.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마음, 생각 등. -화가 난 내 머릿속/ 화가 난 엄마의 마음 속 표현. -친구들의 그림에서 나와의 공통점과 다른점 찾고 소감 나누기.		
마무리	감정 일기장에 기록하기. 다음 시간 안내하고 인사.		

회기	5	도서명	<눈물바다>
목표	부정적 감정 해소 경험. 긍정적 표현 방법 찾기.		
도입	눈을 감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손을 들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눈물바다&gt;라는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 단어로 표현하기.</li> <li>-책 읽어주기.</li> <li>-주인공의 감정 따라가기.</li> <li>-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상황과 그런 감정에 대해 쏟아놓는 시간.</li> <li>-날려버리고 싶은 걱정거리 순위 정한 후 풍선에 쓰고 격파.</li> </ul>		
마무리	느낌 나누고 중간 점검.		
회기	6	도서명	<롤루와 톰>
목표	친구의 장점을 찾아 언어로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 경험.		
도입	둘씩 짝을 이뤄 미니셀 초콜릿 번갈아 올려놓으면서 높게 쌓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롤루와 톰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공유.</li> <li>-‘세희와 채정이’라는 동시 읽고 모방시(칭찬 칭찬은 그대로) 짓기.</li> <li>-짝에게 시 낭송 해주기.</li> </ul>		
마무리	느낌 나누는 후 마무리.		
회기	7	도서명	<겹쟁이 율리>, <겹쟁이 꼬마유령 부우>
목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함을 알기.		
도입	끝말 이어가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려웠던 순간들에 대해 나누기.</li> <li>-책을 읽으며 율리와 꼬마 유령은 어떻게 용기를 내는지 알아감.</li> <li>-용기가 필요한 순간 “토론”</li> <li>-마음에 드는 한 가지씩 다짐! : 감정일기에 기록.</li> </ul>		
마무리	느낌 나누는 후 마무리.		
회기	8	도서명	<꿈지머리 소동>
목표	긍정적으로 느끼는 바를 솔직히 표현하기.		
도입	뭐가 달라졌을까? - 짝의 달라진 모습 찾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읽어주기.</li> <li>-남과 다르기를 바라는 스테파니에 대한 느낌 나누기.</li> <li>-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 긍정성 찾기.</li> <li>-짝을 이뤄 인터뷰 후 발표. 긍정적 피드백만!</li> <li>-짝의 장점 세 가지 말해주기.</li> </ul>		
마무리	느낌 나누는 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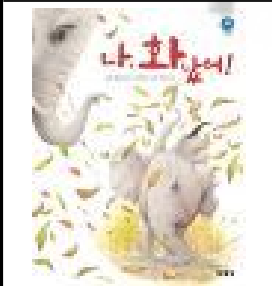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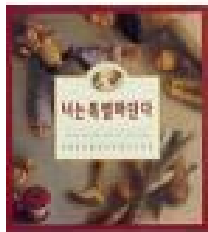


회기	9	도서명	<행복한 돼지>
목표	우리 가족의 긍정적 미래 설계		
도입	빙고 게임(감정 단어,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li> <li>-책 읽어주기.</li> <li>-돼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li> <li>-행복한 우리 집 그리기/ 전시.</li> </ul>		
마무리	느낌 나누는 후 마무리.		
회기	10	도서명	너는 특별하단다.
목표	긍정적 자기상 갖기!		
도입	가위바위보 : 별/점 모양 스티커 붙이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에게 붙여진 스티커에 대한 느낌 나누기.</li> <li>-책을 읽으면서 편치넬로는 어떠했는지 이해 해보기.</li> <li>-편치넬로에게 별표와 점표의 의미? 나에게 별표와 점표의 의미?</li> <li>-돌아가면서 상대방 칭찬해주고 별표나 점표를 떼어주기.</li> <li>-자기 최고상 작성 후 소감 나누기.</li> </ul>		
마무리	자기 최고상 수여식을 갖고 인사 나눔.		
회기	11	도서명	
목표	프로그램 돌아보기		
도입	빙글빙글 세탁기 게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전체 회기 회상하면서 느낌 나누기.</li> <li>-미덕이란 무엇일까? 알아보기.</li> <li>-나의 미덕 뽑아서 마음에 담기.</li> <li>-자신에게 편지 쓰기.</li> <li>-행운권 추첨.</li> </ul>		
마무리	평가지와 소감문 작성		



6.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그림책 중 BEST 3를 골라 볼까요?

<b>1</b>	
<b>2</b>	
<b>3</b>	

1. 점	2. 치킨 마스크	3. 당나귀 덩키덩키	4. 고탐쟁이 엄마
			
5. 나, 화났어!	6. 눈물바다	7. 룰루와 톰	8. 겁쟁이 율리
			
9. 겁쟁이 꼬마유령 부우	10. 콩지머리 소동	11. 행복한 돼지	12. 너는 특별하단다.
			

7.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과 그 이유를 간단히 쓰세요.

활동 (그림책)	이유

8.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활동과 그 이유를 간단히 쓰세요.

활동 (그림책)	이유

9.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전체적인 소감을 적어 봅시다.


10.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록 4. 프로그램 활동지 예


### 세익와 채정이

임세익

짜꿍이 나에게  
칭찬 칭찬  
미술을 잘한다고  
칭찬 칭찬

내가 짜꿍에게  
칭찬 칭찬  
축구 잘한다고  
칭찬 칭찬

선생님이 우리보고  
칭찬 칭찬  
사이좋게 지낸다고  
칭찬 칭찬



### 내 짜꿍

후다닥

짜꿍이 나에게  
칭찬 칭찬  
카스온라인을 잘한다고  
칭찬 칭찬  
내가 짜꿍에게  
칭찬 칭찬  
유카 잘한다고  
칭찬 칭찬  
선생님이 간식을 준다고  
우리들이  
칭찬 칭찬

**【독서차리】 화가 나면 내 머리 속은?**

무척 화가 난 내 머리 속을 그려보세요.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고 어떤 색들로 그려져 있는지  
화가 났을 때를 기억해 보고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날짜 1월 13일


이름 구름


**【독서차리】 화난 엄마의 마음속**


어려본도 엄마에게 아만맞은 적이 있지요?  
화가 무척 나있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속을 그려보세요.


날짜 1월 3일


이름 님사


 <b>【독서자료】 화가 나면 내 머리 속은?</b> 무척 화가 난 내 머리 속을 그려보세요.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고 어떤 색들로 그려져 있는지 화가 났을 때를 기억해 보고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날짜	월	일
	이름	구리	



 <b>【독서자료】 화난 엄마의 마음속</b> 여러분도 엄마에게 아담맞은 적이 있지요? 화가 무척 나있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속을 그려보세요.	날짜	월	일
	이름	나나	



 <b>【독서자료】 화가 나면 내 머리 속은?</b> 무척 화가 난 내 머리 속을 그려보세요.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고 어떤 색들로 그려져 있는지 화가 났을 때를 기억해 보고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날짜	월	일
	이름	타간	



 <b>【독서자료】 화난 엄마의 마음속</b> 여러분도 엄마에게 아담맞은 적이 있지요? 화가 무척 나있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속을 그려보세요.	날짜	월	일
	이름	구름	

